

예비보육교사의 OK-gram 긍정성과 학대인식 연구

이남순
송곡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A study on OK-gram positiveness and abuse awarenes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Nam-Soon Lee

Social Welfare Consultation, Songgok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예비 보육교사의 긍정성과 학대인식 관계와 전공분야 특성과 학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긍정성의 하위요인은 자기긍정성과 타인긍정성으로 나누고 학대는 4가지 하위요인인 신체, 성, 정서,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강원도, 서울 소재의 보육학과 및 사회복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 5일간이었다.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얻은 결론은 첫째, 긍정성은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자기긍정성과 타인긍정성 중 타인긍정성이 높으면 학대 인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예비보육교사의 타인긍정성을 높이는 인성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둘째, 학대정도의 심각성은 평균값 4.594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4.789), 신체(4.587), 방임(4.510), 정서(4.498) 순으로, 정서학대에 대하여 지표를 인식하는 정도가 제일 낮아 정서 학대인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전공분야 특성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실무경험이 학대 인식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하여서는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보육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육교사 훈련과정 중 실무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특히 보육실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실무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Kgram and abuse awareness, and between th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field and abuse awarenes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who are taking the (child care) course as part of their university curriculum. Positiveness isclassified into 2 subfactors,self-positiveness and other positiveness, while abuses are classified into 4 sub factors,viz. body, sex, emotion and neglect,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sof each sub factor. A survey was carried out fo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of the universities in Gyeonggi-do, Gangwon-do and Seoul, during the 5 day period from 8th May to 12th May, 2017. After conducting 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rom which we made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positiveness influences abuse awareness, and that when other positiveness is higher than self-positiveness, abuse awareness is increased. We also concluded that we should provide more personality programs that enhance others positiveness. Second, the seriousness of abuse level showed an average value of 4.594, which is highly recognized, while the level (required) to recognize the index wasin the order of sexual(4.789), physical(4.587), neglect(4.510), emotional(4.498), with the index of emotion beingthe lowest. This indicate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ocial standard on emotion abuse awareness. Thir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field,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actual work experience of being a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was helpful to raise their abuse awareness, and thatchild care practice wasthe most important.Therefore,w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arrange practical courses which increase the chance of obtaining actual work experience and provide child care practice during child care teacher training.

Keywords : Abuse awareness, I'm ok you're ok, OK-gram,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Transactional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Nam-Soon Lee(Songgook College)

Tel: +82-10-5878-5117 email: ns1004@songgok.ac.kr

Received July 12, 2017

Revised (1st August 23, 2017, 2nd September 6,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아동 학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육 시설에서는 학대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고 CCTV설치를 통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학대 금지 및 처벌과 신고의무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7대 안전영역을 제시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28건(4.2%)에서 2015년 1,500건(9.0%)으로 2배 이상의 신고건수가 증가하였다.[1] 이는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하지만 학대피해 연령 중 만6세 미만은 28.5%로 높게 조사되었고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79.8%에 해당하는 9,348건으로 아직도 신고 되지 않은 학대가 여전히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5,368건(45.8%), 친모는 3,475건(29.7%)으로 매우 높았다. 대리양육자의 경우 1,431건(12.2%)에 해당하였는데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보육교직원인 427건(3.6%)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1] 이 통계의 시사점은 학대가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또는 “미운 아이 딱 하나 더 주고 귀한 아이는 매 한 대 더 준다.”라는 격언을 토대로 한 전통적 양육방식에 의해 여전히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 시설은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리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학대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미성숙한 아동의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후유증이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스라엘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2] 연구팀은 어릴 때 정서

학대를 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관계의 안정도와 만족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어릴 때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받은 학생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격을 좌우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낭만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Nancy Dodge도[3] 어릴적 학대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연구 조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학대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미래 성인기의 삶의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류분석 심리학에서도 타인긍정성이 낮은 인생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 거부 등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릴적 학대경험은 타인긍정성이 낮은 생활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다.[4] 지주예의 연구에서도 어릴적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의 학대발생이 높다고 하였다.[5]

따라서 긍정성과 학대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긍정성과 학대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올바른 교사 양성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아동 양육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취급되어 사회적 개입이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의 변화이다. 그 예로 교사인성론의 대면교육, 아동복지교과목을 아동권리와 복지로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현장 실습기간을 4주에서 6주로 하여 현장 실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대는 개인의 특성으로 다루기도 한다. 즉 학대에 대한 유형과 지표는 있지만 개인에 따라 지표를 이해하는 심각성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거나 긴급히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정서적 학대를 느끼는 아동의 개인차에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기 매우 어렵다. 이미향 연구에서도 하나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해 자기 긍정성이 저하된다고 밝히고 있다.[6] 이는 구분이 모호하여 보육교사 스스로도 학대라고 느끼지 못하는 학대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학대예방교육은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외부에서 제시하는 학대예방교육이 아닌 자기인식이 바탕이 되도록 점검하는 내부변화 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교류분석심리학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타인공정성이 낮은 인생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 거부 등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학대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하였는데[4], 본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인식차이가 크다고 하는 정서적 학대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날 것인가를 보육교사를 준비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보육교사양성 교과목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긍정성(자기공정, 타인공정)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4가지 학대유형의 인식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긍정성의 개념

본 연구에서 긍정성은 교류분석심리학인 TA(Transactional Analysis)이론에서 다룬 인생태도에 있는 OK-gram 긍정성을 사용하였다. 교류분석심리학을 최초로 연구한 Bern은 어린 시절 각본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4] 4가지로 요약하면, 자기공정, 자기부정, 타인공정, 타인부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정성은 다루지 않으며, 긍정성인 자기공정과 타인공정만 다루기로 한다.

교류분석심리학 이론에서는 OK-gram(삶의 자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첫째, 자기공정 타인공정이다. 이는 남과 잘 지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자기부정 타인공정이다. 타인과 관계에서 위축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셋째, 자기공정 타인부정이다. 남들을 아래에 두고 타인을 억압하려는 관계 형성을 시도 한다. 넷째, 자기부정 타인부정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세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다.[7]

이상의 4가지를 살펴본 결과 특히 타인공정성이 낮을수록 권위적이고 억압하려는 생활 자세를 가질 것이다. 타인공정성이 낮으면 학대 인식이 낮을 수 있으며, 긍정성에 따라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긍정성은 자기공정성과

타인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자기공정성 결정요인으로는 외모에 대한 만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생각,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위축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를 자기공정성으로 한다. 타인공정성은 타인의 의견을 수용,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타인의 기념일을 챙기는 관심,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수용하고 칭찬을 자주하며, 타인을 믿고 타인도 자신을 좋아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타인공정성을 정의 한다.[8]

2.2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 문화, 나라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 환경적 요소들에 따라 아동 양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9] 즉, 아동학대의 개념은 한 사회가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아동양육 방법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개인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적 영역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학대의 개념을 살펴본 바로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방임(neglect)의 네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2.3 긍정성과 학대인식의 관계

Bern은 인생초기인 유아기에 학대를 받으면 타인을 긍정하지 않고 타인을 거부하는 태도의 생활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다. Steiner도 이에 동조 하였으며, Ian Stewart와 Vann Joines가 그들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4]

Anita Mountain과 Chris Davidson은 인간관계에서도 타인공정성이 낮으면 관계를 건강하고 대등한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10]

국내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적응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타인공정 인생태도 및 자기공정 인생태도를 가질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친구, 선후배 등

과의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중학생 생활자세와 인생태도 연구에서는 자기부정 및 타인부정 보다 자기긍정 및 타인긍정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건설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12]

고교생의 인생태도가 진로성숙도 및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긍정이 높은 사람이 타인긍정도 높았으며, 성숙, 통제, 안정감이 있다고 조사되었다.[13] 따라서 타인긍정성이 높으면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며, 학대 인식도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본다.

Anita Mountain과 Chris Davidson에[10] 따르면 타인긍정과 함께 자기긍정도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긍정성이 낮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비난이 높다고 하였다. 이 또한 건강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황해익은[14] 유아교사의 유머, 긍정성, 행복감의 연구에서 긍정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유머와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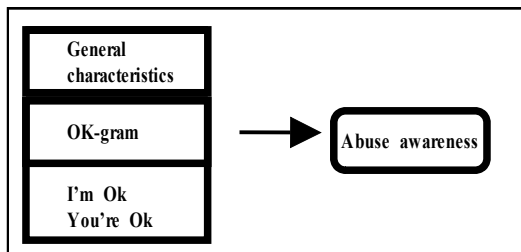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긍정성에 따른 학대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변인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긍정성에 관련된 도구는 한국교류분석상담협회의 최영일 박사가 개발한 CKEO 지표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자기긍정성은 0.758, 타인긍정성은 0.782이다. 타당도는 0.05이다.[8] 학대지표는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한 학대유형을 근거로 4가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2.1 긍정성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육교사의 긍정성 측정을 위해 긍정성을 자기긍정성 10문항과 타인긍정성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로, 채점방법은 ‘매우 그렇다’에 5점, ‘비교적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계산하였다. 내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OK-gram (I’m OK and You’re OK)

Factor	Categories
I’m OK (1-10)	I am kind of satisfied with my body appearance.
	I think that I am faithful to my life.
	I do not mind my failure.
	I still have a lot of hidden talent.
	I am a charming and nice person.
	I think I can do anything if I try.
	I am an important person anywhere.
	Even if there is a bad thing, I recover my mood very quickly.
	I tend to express my feelings well.
	If I have a favorite person, I tend to approach first.
You’re OK (11-20)	I tend to get along with even though a person has a different way of thinking with me.
	I think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have their own opinions.
	It is difficult to reject others' requests.
	I often remember and celebrate the anniversary of another person.
	I think others live happily and beautifully.
	I think others are reliable.
	It is easy to give and receive gifts to others.
	I reacts generously to the mistakes of others.
	I often give compliments to others.
	Others are comfortable with me.

3.2.2 학대 인식

학대인식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신체, 정서, 성, 방임의 4가지로 구분하여 총 29문항을 구성하였다. 관련된 질문지의 각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로, 채점방법은 ‘심각한 학대이다’에 5점, ‘학대이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학대가 아니다’에 2점, ‘심각한 학대가 아니다’에 1점을 주어 계산하였다. 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buse awareness

Factor	Categories
Physical (1-6)	Corporal punishments inflicted on infants under 12 months of age are absolute abuses.
	Slapping is abuse.
	Use tools (ruler, books, cane, ballpoint pens, etc.) to threaten or hit parts of the body.
	Push or grab a child.
	Shake hard or have a child hit the wall. Throw objects at children.
Emotional (7-14)	Let children to do work (labor) or learning that does not fit the child's developmental level.
	Lower self-esteem by causing psychological anxiety and depression with ignorance and indifference
	Hurt their mind with offensive epithet.
	Undress a child and let stand.
	Reject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Create a fearful atmosphere (fighting, loudness, etc.) to make a child feel fear.
	Pressure excessively with unrealistic expectations. Ignore the promise with the child or offend the child.
Sexual (15-19)	Touch the child's sexual organ. Forcibly caress or force a physical contact. Forcibly take off the child's clothes.
	Exposure to pornographic video media Let the child to see the scene of sexual intercourse by exposing it.
	Do not care if children come late. Let alone for a long time.
	Leave children in unclean condition or do not wash. Do not provide adequate food, clothing and shelter.
Neglect (20-29)	Allow unauthorized absence or do not send educational facilities.
	Do not get vaccinated on time or neglect treatment when they are sick.
	No experience of entertainment and cultural facilities due to lack
	The adequate education is not provided due to lack of environment required to potential talent develop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not appropriate due to the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

3.3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교 보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경기도, 강원도, 서울 소재 학생 300명을 비확률표집으로 선정하여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90부(회수율 96.6%)를 회수하였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통계적 가치가 없는 설문 18부를 제외한 272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3.4 분석 방법

이 연구는 IBM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위해서 빈도분석을, 그리고 긍정성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방법(평균, 표준편차)을 사용하였다. 긍정성과 학대인식 요인을 구성한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긍정성 인식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긍정성 인식의 측정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유의수준은 0.05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Table 3>과 같이 연령대, 학년, 성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10대(42.6%), 20대(51.5%), 30대(1.8%), 40대이상(4.0%)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은 1학년(42.6%), 2학년(55.1%), 3학년(2.2%)로 나타나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을 묻는 문항에서는 남자(11.8%), 여자(88.2%)로 여자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Categories	Frequency
Age	10~19	116(42.6%)
	20~29	140(51.5%)
	30~39	5(1.8%)
	40~	11(4.0%)
	All	272(100%)
Grade	1Grade	116(42.6%)
	2Grade	150(55.1%)
	3Grade	6(2.2%)
	All	272(100%)
Gender	Male	32(11.8%)
	Female	240(88.2%)
	All	272(100.0%)

4.1.1 예비보육교사의 전공분야 관련 특성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전공분야 관련 특성으로 <Table 4>와 같이 취업의향, 희망근무지 유형, 학대관련 과목 이수 현황, 시설현장 경험 유무, 현장 경험의 학대

인식 도움 유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 경험의 종류로 구성하였다.

첫째, 취업의향은 있다(71.7%), 없다(28.3%)로 전공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공 분야로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향도 28.35나 되어 추가로 어떤 이유가 잠재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둘째, 졸업 후 희망 근무지 유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70.8%), 법인어린이집(1.5%), 민간어린이집(5.1%), 가정어린이집(4.6%), 직장어린이집(13.3%), 영아전담어린이집(1.5%),기타(3.1%)로 조사되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선호 하였고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학대 관련 과목 이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있다(98.2%), 없다(1.8%)로 대체적으로 학대관련 교육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시설현장경험(참관, 실습, 자원봉사, 산학실무경험, 기타)으로는 있다(71.0%), 없다(29.0%)로 조사되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현장 경험이 있는 응답 중 현장경험이 학대인식에 도움 유무를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로는 도움이 되었다(85.5%), 도움이 되지 못했다(14.5%)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현장 경험이 학대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경험으로는 보육실습(65.8%)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고 다음으로 자원봉사(14.3%), 시설참관(11.0%), 기타(5.5%), 산학실무경험(3.3%)으로 나타났다.

Table 4. Major characteristics

Spec.	Categories	Frequency
Employment intentions after graduation	Yes	195(71.7%)
	No	77(28.3%)
	All	272(100%)
Desired working type after graduation (among those who answered with employment intention after graduation)	National daycare center	138(70.8%)
	Corporate Daycare Center	3(1.5%)
	Private Daycare Center	10(5.1%)
	Home day care	9(4.6%)
	Workplace daycare infant dedicated day care center	26(13.3%)
		3(1.5%)
	Others	6(3.1%)
	All	195(100.0%)

Completed abuse related courses	Yes	267(98.2%)
	No	5(1.8%)
	Total	272(100.0%)
Institution field experience	Yes	193(71.0%)
	No	79(29.0%)
	All	272(100.0%)
Field experience is helpful to abuse awareness (Among the responses by those who have experienced in the field)	Yes	165(85.5%)
	No	28(14.5%)
	All	193(100.0%)
Field experience that is thought to be required	Institution touring	30(11.0%)
	Child care Practice	179(65.8%)
	Volunteer service	39(14.3%)
	Practical experience through university industry partnership	9(3.3%)
	Others	15(5.5%)
	All	272(100.0%)

4.2 긍정성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예비보육교사의 긍정성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학대인식은 종속변수에 해당된다. 공인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Table 5> 과 같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였다.

Table 5.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Reliability
I'm OK	0.853
You're OK	0.895
Physical abuse	0.904
Emotional abuse	0.934
Sexual abuse	0.937
Neglect	0.951
All abuse	0.977

긍정성 인식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Table 6>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공선성 통계값 VIF는 1.9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방임 4가지유형 모두 타인 긍정성이 자기긍정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0.05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베타 값이 자기긍정성 0.027보다 타인긍정성 0.311으로 나타나, 타인긍정성이 높으면 학대인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귀 분석의 설명력은 0.109(R제곱)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fluence analysis of OKgram awareness abuse awareness

Variables	Physical abuse						
	B	SE	β	t(P)	R ²	F(P)	VIF
Constant	3.756	.162		23.183(.000)	.098	14.634	
i'm Ok	.067	.045	.122	1.507(.133)		(.000)	1.970
You're Ok	.165	.062	.215	2.645(.009)			1.970
Emotional abuse							
Constant	3.529	.174		20.275(.000)	.108	16.230	
i'm Ok	.029	.048	.049	.609(.543)		(.000)	1.970
You're Ok	.242	.067	.292	3.609(.000)			1.970
Sexual abuse							
Constant	4.002	.162		24.767(.000)	.085	12.419	
i'm Ok	-.034	.045	-.063	-.775(.439)		(.000)	1.970
You're Ok	.252	.062	.332	4.051(.000)			1.970
Neglect							
Constant	3.593	.184		19.514(.000)	.088	12.902	
i'm Ok	-.005	.051	-.008	-.092(.927)		(.000)	1.970
You're Ok	.261	.071	.301	3.684(.000)			1.970
All abuse							
Constant	3.720	.155		24.003(.000)	.109	16.531	
i'm Ok	.014	.043	.027	.336(.738)		(.000)	1.970
You're Ok	.230	.060	.311	3.855(.000)			1.970

4.3 예비보육교사의 4가지 학대인식 정도차이

학대요인 인식에서는 평균값이 4.594로,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하위요인에서는 성적(4.780), 신체적(4.587), 방임(4.510), 정서적(4.498)순으로 나타났고, 4가지 학대유형 중 정서학대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지표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개인적으로 크다고 제시한 이미향[6]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정서학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Level of awareness by 4 abuse factors

Factor	N	Mean
Physical abuse	272	4.5870
Emotional abuse	272	4.4986
Sexual abuse	272	4.7809
Neglect	272	4.5107
Abuse Level	272	4.594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긍정성과 학대인식의 차이와 정서적 학대 구분의 어려움이 있는지 두 가지로 크게 분류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긍정성은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자기긍정성과 타인긍정성 중 타인긍정성이

높으면 학대 인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교류분석심리학의 인생태도인 타인긍정성이 낮으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학대 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였다.[4] 또한 어릴적 학대 경험은 타인을 믿지 못하고 비난, 거부 등을 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이론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2],[3],[7],[10] 따라서 법적인 접근의 교육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인식과 변화를 위한 타인긍정성을 높이는 인성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야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둘째, 4가지유형과 지표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4가지 지표의 학대인식 평균값이 4.594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4.789), 신체(4.587), 방임(4.510), 정서(4.498) 순이었다. 정서학대에 대하여 지표를 인식하는 정도가 제일 낮아 다른 연구결과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6] 이는 정서학대인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타인긍정성을 높이고 자신을 이해하는 교과과정을 전 학년에 걸쳐 꾸준히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정서적 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의 의의는 교류분석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긍정성에 따른 인간관계 형성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다. 어릴적 경험과 삶의 자세는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구

분 짓고 행동하게 되며,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삶의 태도 중 타인을 긍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비난, 거부, 압박, 등으로 학대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orea 1391, "2015 Report on child abuse status reports," mohw, www.korea1391.org, 2016.
- [2] Ben Gurion University, "Troubled Romantic Relationships May Stem From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2012.
http://www.medicalnewstoday.com
- [3] N. D. Reyome,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on Late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 19, pp. 1-4, 2010.
DOI: <http://dx.doi.org/10.1080/10926770903486007>
- [4] S. Ian, J. Vann, 'TA Today', 178-182, hakjisa, 2013.
- [5] J. Y. Ji,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ive Paren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6] M. H. Lee, "Research Trends Analysis on Child Abuse",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7] J. H. Woo, "Clinical TA Program", 237, Jeongam.
- [8] Y. L. Choe, CKEO(Choe's Korean standard Ego Ok gram), *Korean Ego Ok Gram Institute*, 2013.
- [9] J. L. Kim, "Mothers'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and perception of child maltreat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10] M. Anita, D. Chris 'Working Together: Organizational Transactional Analysis and Business Performance', 42-43, hakjisa, 2015.
- [11] S. I. Bae, "The Effects of Ego State and Life Position by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Freshme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2] N. R.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ife-Position 'I'm OK-You're OK' and the Life-Position 'I'm not Ok-You're not 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13] Y. J.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high school student's life positions on career matur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14] H. I. Hwang, H. M. Kang, J. H. Tak, "The Meditating Effect of Positive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or and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18, no1. pp. 341-363, 2014.

이 남 순(Nam-Soon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2월 :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위원
- 2005년 3월 ~ 현재 : 송곡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보육